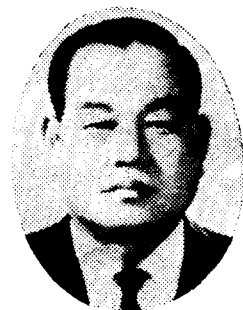


祝 辭



大韓損害保險協會理事長 李 寶 衡

韓國火災保險協會가 業務를 開始한지 不過 月餘에 雜誌「火災安全點檢」의 創刊號를 發刊하게 된 것은 韓國火災保險協會 任·職員 여러분의 意志와 使命感의 結晶이라 믿으며 保險人의 한 사람으로서 眞心으로 이를 慶賀하는 바입니다.

“불”이란 人間이 發見한 人間生活 最上의 道具이며 人間에게는 가장 親近한 벗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人間生活과는 한 時도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는 必要不可缺한 存在이지만 한편 細心한 注意와 警戒로 敬遠하지 않을 수 없는 存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불”에 對한 危險을 느끼기에 앞서 그 必要때문에 太古로부터 人間과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어 왔읍니다.

“第2의 불”이라고 말하는 電氣의 境遇를 보면, 現代生活에 있어서 보다 根源的인 關係性을 가지고 絶對的인 位置에 君臨하리만큼 日常生活과는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有益하고 便利하며 없어서는 안될 “불”이지만 이것이 人間이 必要로 하는 限界를 벗어 날 때에는 순식간에 億萬의 財物을 灰燼하며 人命을 앗아가는 等의 橫暴로 나타났읍니다. 이러한 事故는 언제나 豫告없이 찾아 왔으며 이럴 때마다 人間은 이러한 事故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때 불을 경계하는 마음도 가져 봅니다만 例外없이 事故는 되풀이 되곤 하였읍니다. 이제 이와 같은 火災事件들을 人間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政府는 今年初「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을 制定·公布하였고, 이 法에 따라 온 國民의 注視와 期待 속에 韓國火災保險協會를 發足시킴으로써 一面으로 火災를 豫防하고 一面 保險加入으로 事後 補償策을 模索한 것이라고 믿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保險人들은 事後補償이라는 分野만을 生覺해 왔으나 이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誕生과 더불어 保險人의 손으로 豫防分野까지 擔當함으로써 國民의 財產保護와 生活安定에 寄與함은 勿論, 나아가 國家的인 利益圖謀에 크게 功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없이 滿足함을 禁할 길 없읍니다.

앞으로 韓國火災保險協會와 이를 이끌어 나아가갈 여러분들의 科學的인 診斷과 效率的인 處理로써 그 所任을 다할 때 防火設備의 不合理한 點은 是正될 것이며 火災를 當한 後 再建하는 等의 不條理한 根本要素가 完全히 除去됨으로써 밝고 明朗한 社會建設에의 中樞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을 確信하면서 「火災安全點檢」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 있기를 祝願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